

9월 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5일만에 반등..다우 0.6%↑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닷새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음. 은행업종과 소매업종, 금속관련 상품주들이 삼각 편대를 형성하고 시장 반등을 이끌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63.94포인트(0.69%) 상승한 9,344.6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13포인트(0.82%) 오른 1,983.2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8.48포인트(0.85%) 상승한 1,003.23을 각각 기록. 공급관리자협회(ISM) 8월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보다 개선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위축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점에 투자자들은 실망. 또 8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많았던 점도 투심(投心)을 압박했음. 그러나 최근 매물로 크게 밀렸던 은행 등 금융주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상품주와 소매주의 강세가 더해지면서 뉴욕증시는 나흘간 이어졌던 하락 고리를 끊었음
천정부지` 금값, 온스당 1,000달러 육박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금 가격은 999.5달러까지 치솟았음. 약달러 베팅과 대체 투자처 모색으로 귀금속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 금 가격 흐름 상 강세장 시그널이 나타난 것도 대량 매수를 부르고 있음. 금 가격은 이달들어 4.6% 상승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최고 랠리를 펼치고 있음. 금 가격은 달러 약세 시에 오르는 경향이 높는데 실제로 유로화는 달러대비 13%나 상승. 데이비드 바클레이 스탠다드차타드 금속 애널리스트는 "달러가 올해 남은 기간동안 금 가격 강세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8월 판매, 할인점 웃고 고급매장 `한숨만	미국 소매업체들의 8월 판매실적이 리세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감소폭이 적었음. 특히 경기부진 여파로고가 소매점의 실적이 크게 부진한 반면 중저가 소매점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음. 톰슨로이터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30개 소매점들의 8월 매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리세션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불안과 가계의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크게 꺼리고 있어, 소매점들의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
美 8월 서비스업 지수 48.4..예상치 상회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3일(현지시간) 8월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 46.4%에서 48.4%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지수는 제조업을 제외한 은행, 항공, 호텔, 레스토랑 등 서비스업종을 커버한다. 8월 서비스업 지수는 11개월래 가장 높았고, 예상치도 웃돌았음.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4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었음. 지수는 기준인 50%를 상회할 경우 경기확장을, 그 반대인 경우에는 경기위축을 나타낸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50%를 넘어섰던 것은 2008년 9월

	50%를 기록했던 것이 마지막임.
中 4대 국유은행 대출 감소세 지속	일 로이터 통신은 관영 중국증권보를 인용해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 은행, 건설은행 등의 8월 신규 대출이 총 1,6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이는 7월 1,650억위안에서 감소한 것. 지난 상반기 중국 은행권의 총 대출 중 4대 국유 은행의 비중이 45%를 차지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대출은 급감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에 예비치에 따르면 중국 은행권의 지난달 총 신규 대출 규모는 3,200억위안으로 올 들어 월간 기준 최저치를 나타낼 전망. 중국의 대출은 지난 2개월동안 급격하게 줄고 있음. 지난 상반기 대출은 월 평균 1조2,300억 위안을 나타냈으나, 7월에 3,559억위안으로 급감.
국민총소득(GNI) 플러스 전환..위기이전 구매력 회복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GNI는 240.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에서는 실질GDI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날 새로 수정된 잠정치에서는 실질GDI와 실질GNI 모두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왔음. 반면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44.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의 감소세를 이어갔음. 이는 우리 경제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회복이 덜 됐지만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이나 체감경기를 기준으로 보면 침체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을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됨.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녹색경영, 새 성장의 원동력"	정몽구 회장은 3일 현대차(005380)가 발간한 `09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경영, 품질경영, 브랜드경영을 통한 외형적 성과와 친환경경영의 본격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정 회장은 또 "현대차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은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전략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 그는 지난 7월 출시한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가 현대차의 블루 드라이브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음.